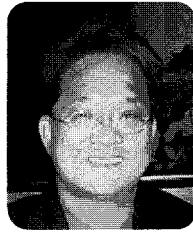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FTA 논의동향과 양돈산업의 대응방향



허 덕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머리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세계적인 조류이지만, 체결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부문간 희비가 교차된다. 상대가 일본이라면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유리할 것이지만, 제조업은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고, 중국이라면 제조업 등에서 이익이 기대되는 반면 농업부문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7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된 FTA의 체결 건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포함하여 240건이나 되었다. 왜 이처럼 지역무역협정이 유행하는 것일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유럽공동체(EU)에서 그 이익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EU로 알고 있는 유럽연합이 몇년 전에는 EC(유럽경제공동체)로 불

렸다. 또한 그 이전에는 EEC(유럽공동시장)이라 하였다. 이의 모태는 벨기에와 네델란드, 룩셈부르크간 체결된 베네룩스 관세동맹이었으며, 또한 그 이전에는 유럽 내 몇몇 나라끼리 관세 없이 교역을 하던 자유무역협정의 시대가 있었다.

처음에는 FTA에서 시작하더라도 점차 관세동맹을 맺게 되고, 나아가 역내에서는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동시장의 단계를 거쳐, 역내에서 공동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의 단계로, 더 나아가 초국가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완전경제통합단계에 이르는 발전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발전하는 원동력은 경제적 이익이지만, 점차 지역별로 불력을 형성하여 정치적인 힘도 부수적으로 따르게 된다.

2. 우리나라의 FTA 논의동향

우리나라가 처음 FTA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칠레부터이다. 이어 1999년과 2000년 사이 한국은 일본, 태국, 뉴질랜드 등과 양자간 FTA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였고, 일본과는 정부 대표가 참여한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개최하였다. 2002년 10월에는 1998년부터 논의해 온 한·칠레 FTA가 타결됨으로써 지역주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동북아를 확대한 동남아 및 동아시아 FTA, 한·아세안(ASEAN)을 비롯하여 유럽의 EU와도, 그리고 미국과도 FTA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나라 또는 블럭과 FTA를 체결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미 그 경제적 효과를 예측해 놓은 상태이다.

3. 한·일 FTA의 논의 경위와 과 급영향

일본과의 FTA 논의는 1998년 10월, 김 대

통령이 방일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한·일 FTA 공동연구를 추진할 것을 제의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 1998년 11월에 양국 통상장관 회담시 양국간 FTA 추진에 관해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를 시행키로 합의하고, 1998년 1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한·일 공동으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2000년 5월과 9월,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2001년 상반기에는 FTA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양국 경제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을 설치하여, 2001년 9월과 2002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개최하였다. 2002년 3월에는 양국 정상회담 때 경제계, 학계,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2003년 10월까지 제8차 회의까지 개최하고, 공동연구회 활동을 종료하였다.

공동연구회 한국측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는 단기적으로 국가 후생수준 0.03% 개선, GDP는 변동이 없고, 대세계 무역수지는 55억불 정도 개선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후생수준 9.29%, GDP 10.44%, 대세계 무역수지 182억불을 개선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은 6,200만 달러의 증가가 예상되며, 가공식품 분야의 긍정적 효과는 8억5,4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10대 신선 농산물의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5,800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농업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서 생산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축산, 화훼, 채소, 과실, 미곡 생산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출 증가율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채소 21%, 과실 27%, 화훼 6%,

<표 1> 한·중·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동향

협정대상국	진행상황
한국-일본	산·관·학 공동연구 활동 완료
한국-칠레	국회비준 완료, 2004년 4월부터 발효
한국-뉴질랜드	양국간 FTA 효과 공동연구 완료
한국-태국	양국간 FTA 효과 공동연구 완료
한국-싱가포르	산·관·학 공동연구 활동 완료
한국-멕시코	2006년 9월 이후 공식적인 협상을 진행키로 함
일본-싱가포르	2001년 1월 FTA 체결
일본-멕시코	FTA 체결, 2005년 1월 발효 예정
일본-캐나다	양국간 FTA 효과 공동연구 진행 중
일본-칠레	양국간 FTA 효과 공동연구 진행 중
중국-아세안(ASEAN)	정부가 공식적인 협상 진행 중, 중국 2004년 타결 제안
한국-중국-일본	FTA 공동연구 완료

우리 양돈산업은 국내에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한·중간이건, 한·중·일간이건 FTA가 체결되더라도 양돈부문의 개방이 다소 늦추어질 수 있도록 하여 준비의 시간을 벌어야 한다.

아울러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하루라도 빨리 확보하지 못한다면, FTA 시대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산 및 유통부문의 투명화와 비용절감, 그리고 질병이나 위생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도축육 47%, 육가공품 12%, 과실 및 채소 가공품 18% 등이다.

4. 한·중·일 FTA의 논의 경위와 파급영향

1998년 한국이 칠레와 FTA 추진을 선언한 후 일본도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중국은 이보다 다소 늦게 FTA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2000년 말에 아세안(ASEAN)과의 FTA 추진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한, 중, 일 3국은 지역주의에의 참여를 구체화하게 되었다. 2002년 11월에는 한·중·일 3국 정상들이 3국간 FTA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3국간 FTA 논의가 심화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일이 서로 관세를 철폐할 경우 역내 국가에 대해 각각 227억 달러, 606억 달러, 240억 달러의 신규 수출을 증가시켜, 매년 1,073억 달러의 무역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예측결과에 의하면, 한·중 FTA 체결시 우리나라 전체의 후생수준은 2.7% 증가하고, 농산물 수출이 9%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입이 88%나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농업생산이 11%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품목별로는 소득감소액이, 2010년 기준 쌀이 10조 원, 여름 채소 2,800억원, 과수 1,830억원, 축산 880억원, 특용작물 400억원, 시설채소 1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과의 교역으로 농업부문은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2〉 한·중·일 FTA 체결의 역내 무역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단위: 연간, 백만 달러)

수출국 \ 수입국	한 국	일 본	중 국	합 계
한 국	-	332.00	22,385.67	22,717.67
일 본	8,506.73	-	52,122.21	60,628.94
중 국	4,664.93	19,310.44	-	23,975.37
합 계	13,171.66	19,642.44	74,507.88	107,321.98

그동안 한·중·일 3국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역내 경제협력의 수준은 20% 전후로 북미, 유럽의 50~60%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만약 FTA를 통해 역

내 무역자유화와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역내 교역은 상당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FTA는 3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국간 FTA 체결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장기적으로 한·중·일 FTA를 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다수 주변국가들과 FTA를 먼저 체결하여 정치·경제적 위상을 보다 강화한 후 중국과의 FTA를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FTA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동아시아내 위상 강화는 물론이고 한·일간 FTA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이기도 한 것이다. 한·일 FTA에 중국이 참여하는 모양보다는 한·중·일 3국간 FTA를 체결함으로써 동북아 경제통합 구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주룽지 총리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5. 양돈산업의 대응방향

중국산 돼지고기는 검역상의 문제로 수입이 금지된 상태이다. 한·중·일 FTA가 체결되어도 동물검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국으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동물위생 및 질병관리 강화로 검역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국산 냉장 돼지고기의 가격경쟁력은 매우 높다.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검역(WTO/SPS)협정은 동식물 질병 발생 범위에 대한 기준으로 지역주의(Regionalism)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도 이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자세여서 낙관할 수만은 없다. 중국의 특정지역에서 가축질병



- 한·중·일 FTA 체결은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만큼, 수입 시장에서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돈산업은 차별화에 성공하여야 하며, 차별화의 한계는 비용 절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무발생 증명 및 관련 자료를 제시할 경우, 수입금지 해제가 불가피하게 되어 중국산 돼지고기가 다른 농산물처럼 시장의 대부분을 점령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우리 양돈산업은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국내에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한·중간이건, 한·중·일간이건 FTA가 체결되더라도 양돈부문의 개방이 다소 늦추어질 수 있도록 하여 준비의 시간을 벌어야 한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만큼, 수입 시장에서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돈산업은 하루라도 빨리 차별화에 성공하여야 하며, 차별화의 한계는 비용 절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하루라도 빨리 확보하지 못한다면, FTA 시대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산 및 유통부문의 투명화와 비용절감, 그리고 질병이나 위생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양돈**